

PREVIEW

권혁 개인전 <Controlled and Uncontrolled>
Kwon Hyuk solo exhibition

전시기간 | 2017. 4. 7 금 - 4. 29 토
오프닝 리셉션 | 2017. 4. 7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7. 4. 15 토 16시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권혁 작가의 개인전 <Controlled and Uncontrolled>을 준비했다. 권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법칙들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탐구해 온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 인터뷰

Q. 작가께서는 평소 우주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가 있었나요?

A.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다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나 상황들을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접하게 된다.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삶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전복시켜 버리고 마는 일들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게 되며, 삶의 의미에 대하여도 인간의 관심에서 출발한 의문은 자연 만물로, 더 크게는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우주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있는 근원적인 본질을 찾다가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로부터 시작하여 동양적 사상으로 우주의 조화와 원리를 숫자로 풀어가는 <천부경>까지 관련 자료들을 흥미롭게 탐구하고 있다.

Q. 삶은 보통 부조리함이나 우연 등의 혼란스런 '상황'들이 어우러진다고 표현되곤 하는데 권혁 작가와 작품에 대한 대화를 하다보면 이 속에서 모종의 규칙 혹은 절대적 필연 등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고찰이 시각적으로 '형상'화 될 때 작가가 염두에 두는 표현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A. 일단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진행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재료를 다루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과 물성이라는 것을 이용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자연스런 형태를 물감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현상을 화면으로 끌어내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숨; Breath을 형상화하는 등,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되든지 매번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는 것과 그 결과를 이끌기 위해 계획된 실행을 계획과 컨트롤하는 것이다.

Q. 작품의 화면은 페인트와 실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가지 재료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시는지요?

A. 페인트로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실을 사용한다. 작업에서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에너지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로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의 일부인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스티치는 일반적인 기계 스티치와는 다르다. 이것은 자수 재봉틀로서 마치 종이에 연필로 드로잉하듯이 개인의 개성이 나타나는 자유롭게 천에 바늘과 실로 드로잉하는 작업이다. 스티치의 형태는 아주 작은 원들로 천 위에 실로 그려진다. 이것은 원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주어지면, 생명이 탄생하듯이 광목의 무지 위에서 이러한 자연스런 형과 색이 스스로 탄생하는 것과의 연결고리로서 스티치는 존재하는 것이다.

Q. 평면작업은 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듯 합니다.

A. 오래 전부터 이어지던 생명에 대한 관심은 '물(water)'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물(water)'이란 형태가 없는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물질이다. '물(water)' 드로잉은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반복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물의 형태를 그리다가 어느 순간, 그 '물(water)'의 형태를 단순한 원으로 인식해 '물(water)'을 점으로 그려보았다. '물(water)'이란 그냥 일반적인 원의 형태, 원이란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형태이며, 어떤 작은 단위가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제 9회 PT & Critic 임가영 개인전
9th PT & Critic Im Gayoung solo exhibition

전시기간 | 2017. 5. 10 수 - 5. 30 화
오프닝 리셉션 | 2017. 5. 10 18시
PT&Critic 프로그램 | 2017. 5. 20 16시 (패널 : 문선아, 이성휘, 이정형)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제 9회 <PT & Critic>에 선정된 임가영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임가영 작가는 예술행위와 노동행위의 간극에 대한 퍼포먼스적 설치미술을 선보이게 된다. 'PT & Critic'은 신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텍스트 생산, 현직 예술분야 종사자들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업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인터뷰

Q. 임가영 작가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장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공간이라는 구체적 목적이 명확한 곳에서의 행위가 예술과 다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론 혹은 장치가 있는지요?

A. 제 작업에서 행위와 장소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지만,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행위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같은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행해졌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인 제가 하는 페인팅이라는 행위는 어쩌면 장소와 무관하게 작업이나 예술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페인팅공인 제 아버지의 페인팅은 어디서 행해지든, 심지어 딸의 '작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일상적인 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 전시 공간이라는 목적이 명확한 장소 안에서 아버지나 저의 페인팅 모두를 예술행위로 인식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예술과 일상의 스펙트럼 안에서 미묘하게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행위'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수단이 됨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임가영이라는 개인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즉 특정한 행위, 전시, 작업 등을 통해 저 자신을 예술가라는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예술가를 제가 가진 여러 정체성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제 삶의 일부가 예술(행위)을 위해 안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작업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 행위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제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을 예술의 재료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삶과 예술 작업 양자 사이에 어떤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신경쓰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Q. 전시 동안에 생계 활동으로서의 그리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전시 동안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제작된 이미지가 철저하게 예술 작품 활동의 외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 구조와 기획의 세부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동인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커미션'의 형식을 가져와 전시장에서 퍼포밍하려 했는데, 그보다는 현재의 제 직접적인 생계 노동인 웹툰 어시스턴트와 같은 단순 작업을 퍼포먼스화하는 것이 작업의 전체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전시 기간 동안 결과물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과물의 저작권, 금전적 가치, 심지어 이미지의 창작에 제가 기여한 정도 모두 저 자신이 아닌 거래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전자의 기획(커미션)을 따라갈 경우 결과물로서의 이미지가 애초 예술 작품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뢰인, 참여자, 또는 관객에게 위임됩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서브컬처' 이미지들은 전시되든, 또는 제작 과정이 퍼포밍되든, 미술 공간이 추후에 부여하는 미술적 의미와 전혀 무관한 명백한 상품이자 생계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시장 안에서 작품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시 전체의 의도와 맞물리는 지점에서 저 자신이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